

녹색상징구비비지스위크

1999. 12-27

새 천년 녹색지구를 꿈꾸며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이제 12일이 지나면 새해, 새백년, 새천년의 동이 튼다. 사람들은 새 천년에 녹색지구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꿈의 실현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꿈을 위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만 현실화 할 수 있다.

세계는 1960년대 말 <성장의 한계>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인간과환경회의 또는 환경과 개발회의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국제회의를 빈번하게 개최했는가 하면 다양한 국제협약들이 만들어졌음에도 지구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7년 6월 <유엔의제21>의 5년간의 진척사항을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도출하는 유엔 환경특별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총회의 결과에 의하면 40장으로 되어있는 의제 중에서 가장 부진했던 의제는 제4장의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의 변화였다. 지구환경문제의 가장 원초적이며 핵심 과제가 수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도 지구환경의 개선을 기대했다면 망상일 수밖에 없다.

새천년에 녹색지구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의 변화의 실천에서 비롯된다. 그 실천은 누구나가 선 자리에서 당장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내 기업 하나쯤은, 나 하나쯤은, 또는 이 작은 행동 하나쯤 등의 방식은 금물이다. 녹색 지구를 기대한다면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고 새 천년을 맞이 해야 한다.

생산자는 무분별하게 추출된 원자재로 자원을 낭비하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미덕과 쉽게 버리는 습성을 부추기는 생산 양식을 멈추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체제로 전환 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친환경상품을 선택해서 구입하며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폐기 시에 재자원화가 가능한가, 오염원이 아닌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 행동의 환경점점을 해야 한다. 에너지와 물 절약,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 적적량의 물질 사용 등의 소비억제를 하는 녹색 생활을 해야 한다. 소비자란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도 포함된다.

정부는 생산자의 녹색경영과 소비자의 녹색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편이도모 위주의 집행 그리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생산자가 녹색상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소비자는 몰라서 사지 않아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악순환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시장원리에만 내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나라들에서는 <녹색상품 구매 지침서>를 발행하는 한 편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가 하면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해 환경백화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공개 운영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와 환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하고 새 천년을 맞이해야 한다.